

## Clinic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of patients requiring prolonged mechanical ventilation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

\*Mi Hyun Kim, M.D., Ki Uk Kim, M.D., Hye Kyung Park, M.D., Min Ki Lee, M.D.,  
Soon Kew Park, M.D. and Kwangha Lee, M.D.

**Background:** We evaluated the clinic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of patients requiring prolonged mechanical ventilation (PMV) defined as ventilator care for  $\geq 21$  days who were admitted a medical intensive care unit (ICU) of Korea. **Methods:** A retrospective study of consecutive patients was conducted from January 1, 2005 to December 31, 2010. **Results:** A total of 2644 patients were admitted to the medical ICU, and 136 patients (5.1%) met our definition of PMV. Their ICU and six-month cumulative mortality rates were 45.6 and 61.8% respectively. The success rate of weaning from mechanical ventilator was 46.3%. Non-survivors had more non-pulmonary diagnoses at ICU admission (35.7% vs 17.3%;  $p<0.05$ ) and higher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(APACHE) II ( $21.7\pm5.3$  vs  $17.8\pm5.5$ ;  $p<0.05$ ) and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(SOFA) score ( $8.5\pm2.9$  vs  $7.0\pm2.8$ ;  $p<0.05$ ) on day 21 of mechanical ventilation. The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APACHE II on day 21 of mechanical ventilation (Odds Ratio=2.736;  $p<0.05$ )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six-month cumulative mortality. **Conclusion:** In our study, patients requiring PMV had a high six-month cumulative mortality rate. APACHE II score on day 21 of mechanical ventilation appears to be a valuable prognostic factor.

## 객혈 환자에서 치료 방법에 따른 단기 조절 및 장기 조절 여부의 비교

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\*이보람, 이수영, 반희정, 오인재, 김규식, 권용수, 김유일, 임성철, 김영철

**배경:** 객혈의 치료로는 고식적 치료, 기관지 동맥 색전술, 수술적 치료 등이 있지만, 객혈 환자는 대부분 만성 폐 질환 및 전신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치료 방법을 정하기가 어렵다. 본 연구에서는 객혈 환자들의 특성과 원인 질환을 조사하고 여러 치료 방법들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성적을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. **방법:** 객혈을 주소로 내원한 2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토대로 고식적 치료, 기관지 동맥 색전술, 수술적 치료, 기관지 동맥 색전술과 수술적 치료를 병행한 군으로 나눈 후 단기 조절 및 장기 조절의 여부를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. **결과:** 고식적 치료는 161예(73.0%), 기관지 동맥 색전술은 37예(16.7%), 수술적 치료는 16예(7.2%)에서 시행하였고, 기관지 동맥 색전술과 수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는 7예(3.1%)였다. 출혈 양이 많을수록 고식적 치료 보다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 방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( $p=0.09$ ). 단기 조절 여부에서는 고식적 치료군 성공률이 88.2%, 기관지 동맥 색전술군 94.6%, 수술적 치료군 93.8%, 기관지 동맥 색전술과 수술적 치료 병행군 42.9%로 기관지 동맥 색전술과 수술적 치료군이 다른 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( $p=0.001$ ), 장기 조절 여부에서는 고식적 치료군 성공률이 80.2%, 기관지 동맥 색전술군 62.1%, 수술적 치료군 83.3%, 기관지 동맥 색전술과 수술적 치료를 병행한 군 66.7%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( $p=0.17$ ). **결론:** 객혈 환자의 치료에서 단기 조절 치료로 기관지 동맥 색전술 및 수술적 치료는 효과적인 치료로 생각된다.